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전대비 만전

군산시 기업유치·산업구조 개선위한 대응 마련

기반사업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의 대응에 따라 도시와 지역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군산시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업유치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다.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군산시도 능동적인 4차 산업혁명 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기술·산업 육성 정책 등 전반적인 시의 산업환경을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에 합리적으로 대

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서는 이번 4차 산업혁명 추진 계획 마련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 교육, 노동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군산의 현 위치와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별 마스터플랜과 시 중장기 비전과 실천 전략마련 등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에서 시달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시 여건에 적합하고 도입 가능한 과제발

굴 TF팀을 구성하여 국가사업화를 위한 공모, 국가예산 확보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기계, 조선 등 대기업 기간산업의 수요 감소 등 현 추세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유치로 산업단지 구조개편에 따른 선순환 구조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낡은 시설을 현대화시켜 ICT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요에서 자재관리, 제조, 출하까지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되는 미래형공장을 보급하는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

지사와 적극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추세"라며 "군산이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정부가 나아가야 할 산업정책 방향과 다양한 추진과제에 대한 부서별 해당부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공장, 토탈관광, 스마트팜 등 분야별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평곤 기자



익산산림조합이 25일 옹포산림문화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 옹포산림문화체험관 '새 단장'

지역대표 랜드마크 부상 힐링·체험명소 발돋움

익산산림조합(조합장 김관기)이 "옹포산림문화체험관 새 단장을 마치고 25일 개관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옹포면 입질리에 소재한 옹포산림문화체험관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새 단장을 마친 옹포산림문화체험관은 연면적 477㎡로 숲 카페, 다도 체험실, 목공체험실, 제다체험실 등 두루 갖춰 시민과 학생들의 체험활동 증진을 물론 산림과 환경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익산시와 익산산림조합은 이번 보강공사를 통해 최근 최북단 녹차밭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다도 및 목공체험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했다. 시는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부설과 목재계단 설치, 숲 카페 집기 구입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는 정현을 익산 시장이 산림문화체험관 개관에 기여한 공로로 3천여 조합원을 대표해 김관기 익산산림조합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김관기 익산산림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들로 사랑받는 옹포산림 문화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 익산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 지역 산림문화체험관이 1년 반 만에 보다 나은 모습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기쁘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힐링 장소이자 체험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북단 녹차밭에 위치한 옹포산림문화체험관은 2009년 9월 준공되어 2015년 12월까지 운영하다 적지누적으로 인하여 2016년 1월에 운영이 중단됐으나 익산시와 산림조합의 노력으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산림문화체험관 이용신청은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산림조합(☎ 843-19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미주 자매도시와 내달 1일 어린이 그림대회

군산시가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군산 예술의 전당 제2·3전시실 로비에서 '미주지역 자매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림전시회에는 군산시의 미주지역 자매도시인 미국 타코마시와 캐나다 윈저시의 유치원생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 60점과, 지난해 가진 그림그리기 대회 입선작 30점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그림전시회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그림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평곤 기자

군산시 차요테 가공교육 마련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에서는 작지만 강한 군산 강소농 육성을 위해 25일 강소농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요테 재배 확대와 소비확산을 위한 가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수채소 차요테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 군산지역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함으로써 농촌진흥청 한귀정 박사를 초빙하여 기존 군산 울외장어찌의 노하우와 명성을 잇도록 차요테 장아찌를 만들어 보급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차요테는 원래 멕시코 등 남미지역이 원산지로 참외와 비슷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수분과 식감이 무와 같은 박과채소로 재배가 용이하고 주당 150여개의 열매가 열린다. /군산=김평곤 기자

가을시즌 익산 곳곳 행사·공연 봇물

고백투어·감성클래식·천만송이국화축제 등 풍성

가을축제기간을 맞아 익산 곳곳에서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중심의 여행 프로그램과 공연 등이 풍성히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 축제장을 방문하는 '익산고백(Go-100)' 투어가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토·일요일 주말에 개최된다. 익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관광둘레 공간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교도소세팅장에서 소망 향기탑 만들기, 전통장류 체험장 고스락에서 목어가는 인연 다지기, 보석과 국화를 만나는 축제장 방문, 마지막으로 백제왕궁에서 별빛축제 순으로 펼쳐진다. 익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iscf.or.kr)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상공연 행사로 익산문화재단에서는 오는 31일 오후 7시 익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와 함께하는 '네나 신동호&보헤미안 싱어즈 감성클래식' 공연을 개최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오페라 (나부코), (진주조개 집이), (리갈레토), (카르멘) 오페라 아리아 대중가요, POP음악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과 대중가요 등 다채로운 음악이 소개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익산문화재단, 익산예술의 전당, 익산시립도서관 등에서 초대권이 배부된다. 한편 익산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천만송이국화축제기간인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토·일만 운행하던 순환형 시티투어버스를 평일에도 확대 운행한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생통을 대신하여 축제장을 순회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익산역-축제장-미륵사지-왕궁리유적-보석박물관-축제장-익산역을 하루 7회 순환 운행한다. 단 11시 익산역 출발차만 11시 10분으로 변경돼 출발한다. 탑승료는 1일 성인 4,000원, 학생·경로우대자·군인 2,000원이며 단체(20인 이상)는 1인당 1,000원 할인된다. 1일권으로 하루 동안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녕강 총장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

(# 경덕진도자대학)

애교심 발휘 모교발전 기여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중국 경덕진도자대학 녕강 총장의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식을 최근 경덕진도자대학에서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은 김도중 총장 일행이 경덕진도자대학을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2006년 원광대 도예과에서 석사 학위를 마친 녕강 총장은 중국 강서성 미술가협회 상무이사, 강서성 도자산업협회 부이사장, 중국 경덕진도자대학 부총장 등 요직을 역임한 후 2017년 9월 경덕진도자대학 총장에 취임했다. 특히 녕강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무수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중국 경덕진도에서 원광대 출신 중국 유학생들을 모아 '원광대학교 중국 동문 작품전'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남다른 애교심을 발휘하면서 모교 발전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학위수여식에서 김도중 총장은 "녕강 박사는 경덕진도자대학 총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수준 높은 작품 활동과 열정적인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자랑스러운 원광 동문으로서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녕강 총장은 "원광대에서의 유학 시절은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며, "모교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앞으로 도 양교의 전통적인 우애를 더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